

터주나라 터주꼴에
 삼두구미엔 혼
 사름도 아니고 구신도 아닌
 백발노인이 살았습네다.
 삼두구미가 각시가 죽어부난
 헛처를 장만홀 궁량을
 틀었습네다.
 헛로는 삼두구미가
 신산고질 도올르고 보니
 삭다릴 헛는 낭꾼을
 만나게 되었습네다.
 이 낭꾼은 풀만 싹을
 돌안 사는디
 살림이 스몫 여복헛었습네다.
 삼두구미는 이 낭꾼신디 강
 “어떻헛 사름이
 허락도 엇이 낭글 헛느냐”고
 헛었습네다.
 낭꾼은 풀 시성제랑 사는디
 살이가 어려우난
 낭기라도 헛여당
 입구입을 헛젠 흡네다고
 헛었습네다.
 삼두구미는 헛는 말이,
 “정헛염건, 내 중매를
 헛여줄커매
 풀을 부제칩데레 꼭는 게
 어떻헛우겐?
 물었습네다.
 낭꾼은 것도 좋은
 일입네다.
 대답을 헛었습네다.
 낭꾼은 삼두구미를 모시고

집으로 느긋오라.
금전을 하영 받고
큰똥을 풀았습네다.
삼두구민 그 낭꾼의
큰똥을 부인으로 들고
지 사는 산중으로
갔습네다.
삼두구미 부인은
간 보난
산중은 산중이라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잘 사는 집 곁았습네다.
삼두구미는
부인을 스랑으로
돌안 들어가고서
이녁 양착 다릴 뵈 주멍,
므실 강 오는 새에 그걸
다 먹어사 훈댄 헛였습네다.
부인은 금착하고,
그 때사 후회되여도
헛여불내기가 었었습네다.
부인은 그 다릴
먹을 수도 었고,
그럭저럭 시간만 보내는디,
므실 칸 삼두구미는 돌아올
때가 되여갔습네다.
부인은 그 다릴
마릿널을 들런 그 쏘곶에
곶졌습네다.
그후 남편은 들어오면서
“나 다릴 어떻헛였느냐?”
물었습네다.
“예. 문 먹었습네다.”
“게멘 내 시염삼아 불키여.”
삼두구민 큰 소리로,
“나 다리야!”

흐난,
마릿날 알로
“예.”
소리가 났습네다.
그영흐난
삼두구미는 솥시에 뱅식이 되고
머리박은 싯에
폴랭인 아홉은 흐
중싱이 되엿습네다.
그영흐고 흐는 말이,
“이 망홀 년,
누겔 씨기젠 흐느냐?”
삼두구민 인정 스정 엇이
부인을 띄려 죽여불엿습네다.
삼두구미는 다시 백발노인으로
뱅식을 하고
처가집으로 가서
셋년?라
성신디 돌아다주키엔 흐연
돌안 오랏습네다.
삼두구민
셋년을 돌안 들어오란,
먼저번츄록 흐연
긋는 말 안들으난 셋년도
또시 죽여비엿습네다.
삼두구민 또 처가칩에 간
이번은 말죗년을
또시 저번츄록 돌안
오게 되엿습네다.
삼두구민 말죗년?라
“느네 성넨 부제칩으로
씨집 간 잘 사는디,
모릿날은 친정에
선신문안을 오젠 흐는디
긋정 올 물품이 하부난,
그걸 훈디 강 도와 도라.”

헛였습네다.

말쭉년은

고정이 진정으로

삼두구미광 헛디 질을

나샀습네다.

헛참을 걸어 들어가는디,

어떤 대궐골은 집안으로

인도를 헛는디,

쏘곶으론 막습고 헛여도

춤으멍 안트로 들어갔습네다.

집안으로 들어가도

사름이 헛나도 안보연,

말쭉년은

“게난 우리 성님은

어디 싯수광?” 헛난,

이 때사 삼두구민

“어지럽다, 존소리 말라.”

훈두왓을 헛였습네다.

말쭉년은

그 때사 속은 줄을 알고,

“이젠 이 놈을 달래여사

썰로구나”

생각헛였습네다.

말쭉년은 말을 헛되,

“게난, 어떻헌 일이우꽈?

말을 곱읍서 보져.

긋는 말이사 아니들읍네까?”

헛여가난,

그젠 삼두구미는

이넉 양착 다릴 뺀 주멍

“나, 헛 아흐렛 동안

막실 캉 울커매

그 속이에 이 걸 문 먹어.”

헛였습네다.

말쭉년은 말을 잘 들으쿠댄

헛멍,

“게난 영감님이
제일 좋은 일이
이거우꽈?”
헉난
“난, 이 다릴 먹는 사름이
제일 좋아.”
헉였습네다.
그영헉난, 또시
“게멘 제일 궂어헉는 건
뿔이우꽈?” 헉난
“궂어헉는 건
눌독새기광
동데레 벌은 버드낭가지광
무싯덩어리가
제일 궂어.”
헉였수다.
“무사 그건 궂어헉염쑈광?”
“그건 츄츄 알아진다.”
그영헉연 삼두구미가
므실카불고,
말죇년 혼체 집이서
울므로 날을 새단
생각끝에
장작불을 최질르고
그 다릴 문 솔았습네다.
말자인 솔단 남은 팡이
손바닥만인 시난,
그걸 전대에 톨톨 몰안
뱃부기레 대연 감아두고,
독새기광 버드낭가지광
무싯덩어릴 행여단,
곶져두었습네다.
그후 열를챌 날은
묘시가 근당행여가난
삼두구미가 돌아왔습네다.
말죇년은 나산 반기명

“영감님 오실 댈 지드렸습네다. 허난

“나 다린 어떻 허였느냐?” 허연.

“예, 그것을 다 먹었습네다.”

“게멘, 내 확인을 허여 보겠다.

나 다리야!”

이 소리에

말쭉년 배에서

“예!”

허는 소리가 나왔습네다.

삼두구미는 그제사

이녁 다리를 문 먹은 줄

알고, 안심하게 되었습네다.

삼두구미는 말을 허되,

“내 부인이 적실 허다.”

칭찬을 허였습네다.

말쭉년은 삼두구미?라.

“게난, 영감님 일름은

무엇입니까?”

“나 일름은 삼두구미라는

땅귀이다”

“경허민 무사

독새기광 버드낭광

무싯덩인 굿어집네까?”

“그것은 천귀가 땅일을

물어올 때

내가 다른 것들은

다 휘야잡아지여도,

독새기광 버드낭광

무쇠안틴 굴아도랭 허민,

독새긴

‘나는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엇이난 몰르키엥 마니 털곡,

동데레 번은 버드낭가진

뻗뻗허니, 허번 후리민

스죽이 칭칭 자령

운신을 못허곡,

무싯덩어린 불에 지더도
아니카곡 빈통이 엇기로,
내가 조애를 부릴 수가
엇이난 궂어진다.”
또시 궂인 것 엇습네까?
“경헝곡, 놀독새기론
양지레 마쳐불민
까지영 문 든대겨지민
앞도 보지 못헝곡
무싯덩어리로도 마쳐불민
가심이 먹먹헝기로
궂어지는 것 아니가.”
말죇년은 그 말이 털어진
“영감님 머리에
니나 잡아드리쿠다.”
헝연,
니잡는 것츄록 헝단,
얼룬
곱졌단 버드낭가지영
독새기영 무싯덩어릴
내여놓멍,
“영감님, 이거 미싱겨우꽉?
헝여가난,
삼두구민 겁이 나고
대가린 싯에
폴랭인 아웁으로 뵤식헝멍
뽇 찰찰 흘치멍
“이이구! 이거 치와불라
이거 재게 치와불라.”
손 ㄱ로 섞으멍
뒤테레 물러앗이멍
둘을 덜 질리왔습네다.
말죇년은
“예? 이거 무싯 말이우꽉?
나 이 걸로
영감님 말쌈이 츄이멍

그짓이명을 알아볼쿠다.”

헉멍

버드낭가지로 착착 부찌가난.

삼두구민 동펜데레

돌아나가난

말죇년은 독새기광 무싯덩이로

양지영 가심이영

다락다락 마쳐부난

늘룻이 죽어갔습네다.

그제는 말죇년이 먹을 곶안

붓으로 독새기에

천팽지팽을 씨연

삼두구미 즉갱이에 좁져두고

방문을 올안 보난.

아무것도 엇언.

“설룬 성님아

원쉬 갇아시매 훈저 나옵서”

헉난.

“요 방에 싯저”

성님네 소리가 들련.

말죇년은 안방문을 올안 보난

성님넨 독훈 농안티 죽언.

팍만 술강 헉였습네다.

말죇년은 치맏통에

그 팍들 문 좇어 담안

집으로 돌아오란

올래 밖이 모사두고.

아바님전 들어가고.

스실을 말을 헉니.

“아이구! 설룬 나 아가야.

가난이 죄로구나.”

칠성판을 장만헉고

그 팍들을 쯔근쯔근 좇어놓완

시신을 감장헉여 두고

버드낭가질 아름 ㄱ득

준비헉고

산중으로 올라간 보난,
삼두구미가 죽어가단,
이제 막 살아나젠 ㅎ염구나,
말쭉년광 아방은
버드낭가쟁이로
삼두구밀 백대를 띄려 죽연
방앳혹에 놓안 ㅼ산
ㄱ르 내연
허풍부름에 불렀습네다.
그법으로 금시상에
산을 철리홀 땀
시신을 백보 박겼디 강 놓왕
성복젤 ㅎ곡
철리터엔 독새기 시개에
무싯덩어리 싯을 문곡
흙을 덕경
버드낭가질 꼬조왕
삼두구미 땅귀 방쳐 ㅎ는
법을 ㅎ네다.

<한경면 고산리 여무 77세 이춘자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646-650.